

靑 “북미회담 준비 진행과정 순조”

실무접촉·김영철 北 통일전선부장 미국 방문 등에 “좋은 결실 기대”

청와대는 30일 북미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을 가속화 하는 상황과 관련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의제와 의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연동되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달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의 종속변수일 뿐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6월13일 싱가포르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한 번 보자. 저도 모른다”고 했다.

남북 정상이 (언제든) 만나면 된다. 이제 남북 정상간 하이라인 통화 얘기는 없어진 건가라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며 하이라인 통화보다는 직

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김의겸 대변인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특정한가라는 질문에 “미치는 파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미치는 파장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아니다. 청와대 답장을 넘어서는 (파장이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북미정상 이 길 걸을까?

북미정상회담 후보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샹그릴라 호텔 내 오키드 그린하우스 모습.

“고위급 회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협의”

조명균 통일부장관 “경제협력 비핵화 진전 후 추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번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능한 남북공동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가 진전돼서, 여건이 진전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 단계에는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그 간격을 좁히고 서로 맞춰나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단 또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풀이해 보면 그런 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몇 달간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하다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송영무 국방부장관, 내달 1일 샹그릴라 대화 참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기의 관심인 가운데



송 장관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이란 제하의 연설을 통해 관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의의와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송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관한다.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가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뉴시스

함한 40여 개국 국방장관이 모이면 서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이란 제하의 연설을 통해 관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의의와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송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관한다.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가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뉴시스

“평화당 승리 군산경제 부활”

김종희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과 경쟁구도 만들어야”

민주당이 승리해야 전북과 군산경제가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군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군산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경제 참사’의 현장이자 ‘전북 출대’를 여과 없이 드러낸 아픔의 땅”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작”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저조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3년만에 경제성장률 3.1%를 회복했다고 자축했지만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7%였다는 것.

김 위원장은 “군산은 원자폭탄을 맞

은 ‘경제적 피폭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군산지역 총생산의 23.4%와 수출의 43%를 점유하는 GM 자동차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50% 가량이 3만8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확정된 3조8,000억 규모의 추경 가운데 군산에 배정된 추경은 1063억원에 불과한데다 GM 군산공장 폐쇄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131억원에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 확대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더욱 오만한 정권은 전북과 군산경제 회생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전북과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이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을 상대로 뜨거운 ‘구애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도맡을 ‘평화철도 111 유세단’을 출범했다.

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유세단 출정식 가지고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했다. 유세단은 정창래 전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안민석, 유은혜, 전현희, 한경애, 진선미, 손혜원, 조웅천, 박경미, 기동민, 표창원,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진정된 지방분권시대와 남북평화, 남북번영을 향한 문재인 정부 성공의 탄탄대로를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일심동체, 우리가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111’을 붙였다”고 말했다.

정창래 유세단장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평화철도 111 유세단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제주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민주당 후보지지 호소 및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평화당, ‘민생평화유세단’ 오늘부터 본격 활동

민주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평화유세단’을 출범,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나선다.

평화당은 30일 유성열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4당해오 4번타자, 민생평화유세단’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부터 활동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예정이다. 특히 평화당의 민심상그릴라 호텔에서 회의가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뉴시스

방문하는 ‘찾아가는 유세’를 통해 호남의 대안정당이 평화당임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유세단은 유성열 단장,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정동영·천정배·박주현·이상돈 의원과 주요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첫 일정은 31일 오후 2시 광주 양동시장 합동유세다. 이어 오후 5시에는 텃밭인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전남·전북의 각 시·군·구의 5일장 등을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